

'황금바다 프로젝트' 시동... '부자 완도' 만든다

완도군 40개 실천전략 확정



민선 6기 완도군이 '부자(富者) 완도, 관광(觀光) 완도, 행복(幸福) 완도, 희망(希望) 완도'를 실현할 4개 분야 실천전략 40개를 확정했다.

민선 6기 공약사항은 전문가 자문과 관계법령 검토,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이행과 실현 여부를 판단하고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신우철(사진) 완도군은 취임 후 100일 동안 현장과 사람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읍·면 순회방문에 나서 1700여 명의 군민을 만났고, 167건의 건의사항도 접수했다. 또 여객선과 마을회관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 군수실'을 11차례 운영해 750여 명의 군민과 소통하는 의미있는 시간도 가졌다.

신 군수는 지속적으로 낙도 방문과 생활현장 중심의 '이동 군수실'을 확대 운영하고, '군민 소통·통합위원회'를 11월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군정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군정 종합발전 계획'을 내내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융합형 경제발전 추진=군은 '부자 완도'를 만들기 위해 지역융합형 경제발전 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등 12개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 우량종묘 보급과 어장 재배치, 어장 환경개선, 유통센터 건립,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전복요리 개발 등 생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복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군은 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해조류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 기후 변화에 대비한 해조류·전복·광어 육종 프로그램 개발, 수산물 소비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 '황금바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미역, 다시마를 활용한 사료 및 비료 개발, 폐사 어류를 활용한 액비 보급, 바이오 기능수를 활용한 농·축산업육성 등 수산



완도군은 전복 소비촉진을 위해 삼복날을 '전복-데이'로 지정하고 대국민 판촉에 나섰다. 지난 8월 경기도 과천시 서울 경마공원 컨벤션 홀에서 열린 '전복-데이(day)' 선포식에서 신우철 군수와 참석자들이 전복해조류 비빔밥을 만들고 있다. <완도군 제공>

전복산업 적극 육성 등 수산업 중심 농축산업 동반성장 관광객 500만명 시대 열고 해조류박람회 3년 주기 개최

업을 중심으로 농·축산업이 동반성장하는 융복합 산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완도 농업의 미래 발전 전략으로 '완도자연 그대로 농·수·축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선포식을 가졌다. EM(유용미생물) 및 해조류를 활용한 퇴비·액비 등 해조류 및 어류 활용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제품을 개발해 지역 융·복합 산업을 성장시킬 방침이다.

이어 광어 소비 부진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명품광어 생산 선포식도 가졌다. 어민들은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일체의 항생제 등 약품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활동 등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서약했다.

◇500만명 관광객 실현=군은 차별화되고 품격높은 관광마케팅으로 500만명 '관광 완도' 시대 실현을 위해 7개 사업을 추진한다.

해양레저 거점마을 조성, 슬로시티 청산도를 환경 박물관(Ecomuseum)으로 보존하기 위한 21세기형 해양관광시대 기반을 마련한다. 원고 이광사의 문학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장보고, 윤선도, 슬로시티 등 기존 관광문화 자원의 효율적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완도수목원 생태·체험학습장 개발, 보길도 어부사시사길 조성사업 등 관광자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18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장보고 축제'의 한계성을 보완해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를 3년 주기로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 4월 첫 열린 해조류박람회는 해조류의 무궁무진한 가치를 제시하고 소비 대중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군은 따뜻한 복지사회 실현으로 '행복 완도'를 만들어 갈 9개 사업도 추진한다. 군민 누구나 어디서든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100세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 여성, 노인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복기금과 행복재단을 설립 운영한다.

이 밖에도 군은 아낌없는 미래투자로서 신(新) 장보고시대를 건설해 '희망 완도'를 만들어 갈 12개 사업도 추진한다.

수산대학 유치와 청소년 장보고 리더십센터 구축, 글로벌 해양 인재육성으로 완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 사업도 역동적으로 진행한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완도 관광 호텔~신지대교 간 임항도로 개설, 완도~고흥간 연도·연육사업 가시화, 신지~고금, 노하~소안 연륙·연도사업 조기 개통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미래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신우철 군수는 "확정된 공약 사항은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기적으로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점검해 군민과의 약속이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eichung@

'청산도 가을의 향기' 관광객 작년보다 35% 증가

9일동안 1만2667명 방문

완도군 '청산도 가을의 향기' 프로그램이 가을 관광객 몰이에 성공했다.

완도군은 가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근 9일간 '청산도 가을의 향기'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1만2667명이 방문한 것으

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9357명)보다 35.4%가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명사와 슬로길 함께 걷기, 청산 완보 행운의 릴레이, 추억의 보물찾기, 소원바람개비 체험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슬로길 명사와 함께 걷기'는 청산

도에서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슬로시티의 숭고한 이념인 느림과 여유, 행복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명사를 초청해 관광객들과 느림의 미학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명사로는 지난해 '청산도 슬로길'을 함께 걷고 싶은 명사 선정' 이벤트에서 네티즌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명사로 선정된 방송인 김제동씨가 참여했다.

청산도를 방문한 김씨는 관광객들과 함께 국가중요 농업유산 제1호이며 국내 최초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구들장 논을 탐방하고, 옛 선조들이 이룩한 소중한 농경문화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슬로시티 청산도 가을의 향기'는 매년 10월~11월 초 코스모스 만개시기에 맞춰 9일간 개최된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음악에 취한 보길도

문화예술위 지역지원 프로그램... '당신을 위한 노래' 공연

고산 윤선도 선생이 머물렀던 보길도에 모처럼 전통음악과 크로스오버 선율이 울려 퍼졌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는 지난 18일 완도 보길면 보길초등학교 운동장 야외무대와 세연정에서 '당신을 위한 노래'(예술감독 한만주) 공연을 펼쳤다. 이 행사는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공연·예술문화를 접할 수 없는 지역민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기획 프로그램이다.

무료로 진행된 이번 공연에서는 '해금의 디바'로 불리는 강은일&해금플러스가 출연. 품격 높은 연주로 주민들의 문화감동을 끌어냈다. 강씨는 전통

음악과 다양한 장르의 융합을 추구하는 크로스오버 음악의 선구자로 통한다. 해금플러스는 전통과 현대적 음악 어법을 아우르는 새로운 음악을 연주하는 한국의 대표적 하이브리드 음악(Hybrid Music) 그룹.

'당신을 위한 노래'는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 감동과 재미, 그리고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대도시의 대공연장에서 보는 듯한 무대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당신을 위한 노래' 공연은 곡성과 청송(경북), 함양(경남), 울릉(경북), 제주, 광주, 대구 등지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농기계, 화물차에 신지않고 여객선 선적 가능

완도군 규제개혁 성과

완도군이 규제개혁을 통해 농기계를 카페리 여객선으로 이동할 때 화물차에 상차하지 않고도 쉽게 선적할 수 있도록 했다.

완도군은 "카페리 여객선 '차량 적재도 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법령 개선을 건의, 지난달 개정사항이 법령에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카페리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에 따라 차량 적재높이가 지상으로부터 3.5m에서 4m로 바뀌어, 육로의 높이제한(4.5m)과 큰 차이 없도록 했다.

그동안 섬 주민들은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를 싣고 육지를 왕래할 경우 '농기계를 화물차에 상차해 운송해야 한다'는 여객선 운항규정에 묶여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청산면 주민 배모(65)씨는 "농기계를 가지고 육지에 나가기 위해서는 카페리 여객선에 직접 선적하지 못하고 별도의 차량을 임차해 상차해야 했다"면서 "그동안 6만~7만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규제개혁으로 일반차량과 같은 도선비만으로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카페리 여객선 '차량 적재도 기준' 개정사항과 같이 불합리한 법령규제와 생활민원으로 군민 및 기업인들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SAMSUNG 삼성전자 파트너 굿모닝 하이넷

속타는 에너지 비용 삼성이 책임집니다!!

에너지 절감의 혁명!!

동유대비 68% 절감
전기 54%
도시가스 42%

고정비용을 줄여라!!

지역 특관점 및 영업사원 모집

삼성전자 히트펌프보일러 1644-8983

10월 24일 OPEN

1억투자시 월160만원 수익!

순천 최초 수익형 미니아파트 리가안

결론은! 탄탄한 임대수요로 확실한 투자수익을 보장받는 순천풍덕리가안

1599-1129

OPEN기념 10월 25일(토) 가을밤 미니콘서트

방문고객 사은품증정